

정부예산안 반영 정치권에 지원 요청

최훈 도 행정부지사, 국회서 지역·연고 국회의원 만나 동물케어클러스터 플랫폼 구축 등 예산 확보 협조 요청

전북도가 중앙부처별 기재부 1차 예산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국가투자예산 확보에 온 힘을 다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21일 국회를 방문, 지역 및 연고 국회의원에 게 전북도를 동물용 의약품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 동물케어클러스터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해 정치권에 지원을 요청했다.

최 부지사는 이날 도내 구축 중인 동물효능안전성평가센터 부지 옆에 국가 차원의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부탁했다.

전북도는 동물케어플랫폼구축 1단계

사업으로 지난해 4월 2022년까지 인수 공동전염병연구소 부지를 활용해 연면적 9,300㎡, 2층 규모로 동물 의약품 산업의 효능과 안전성을 검사하는 평가센터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유치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동물용의약품 연구개발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한 전북 도내 40여 개 중소벤처기업은 시제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시설이 없어 국가 차원의 공익형 시제품 생산지원시설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제기해왔다.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생산시설이 건립되면, 고부가가치의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급성장하고 있는 동물케어산업 활성화

가 기대된다.

또한, 소형 무인선, 무인잠수정 등 소형 해양 무인이동체 기술검증에 특화된 플랫폼 구축을 통한 미래기술 확보를 위해 새만금지역에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새만금 내해는 실제 바다와 유사한 환경의 정온수역을 이루고 있으며, 해양무인시스템 성능평가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실증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장 진입을 위해 국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조성, 새만금 실감형 콘텐츠 필드테

스트 구축, 수요맞춤형 제약공정 핵심 인력양성센터 등 부처 미온적·부정적 사업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전북도는 기재부 예산심의가 끝나는 8월말까지 정부예산안 최다 확보를 위해 도·시군·정치권이 힘을 모아 총력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7월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북도를 방문해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 할 계획이며, 7월 16일에는 14개 지역 시장·군수를 포함해 지역 국회의원과 도와 시·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시·군·정치권과의 공동활동 시스템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와 (재)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 농협 전북지역본부가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거시기장터'의 첫 수도권 오프라인 홍보를 시범 진행했다.

거시기장터, 첫 수도권 오프라인 홍보

도, 서울 올림픽공원서 차별화된 온라인물 안내 등 눈길

최근 포스트 코로나의 비대면·하이퍼 로컬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도가 온라인 농식품의 다양한 판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와 (재)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 농협 전북지역본부가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거시기장터'의 첫 수도권 오프라인 홍보를 시범 진행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른바 '슬세권'이라 불리는 동네생활권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온라인 물은 온라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하이퍼 로컬'은 특정 지역·동네 상권에 기반을 둔 플랫폼 개념이다. (예: 중고거래 서비스인 '당근마켓' 등)

전북도가 홍보에 참여한 서울 올림픽공원은 인근 많은 세대의 아파트단지 주민이 산책 등 여가시간을 보내는 도심 속 휴식공간이

다.

타 지자체 부스는 현장 판매에 중점을 뒀던 반면, 전북도는 산책 나온 아파트 주민 맞춤형으로 홍보는 현장부스에서, 추가 실구매는 온라인몰인 거시기장터로 안내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많은 아파트 주민들은 제철 제맛 등 거시기장터의 다양한 기획점이 안내된 홍보 마스크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북도는 작년 광역지자체 최초 농산물 드라이브 스투 장터, 전주발 효식품엑스포 온라인 개최 등 코로나 시대에 한 걸음 앞선 시도로 전국적 관심을 끌었다"면서 "거시기장터도 경진원, 전북농협과 함께 제철제맛 펀딩, 이번 서울 올림픽공원 홍보 등 지역 기반 비대면 추세에 적극 대응해 농산물 판로의 새로운 시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연구원, 지역 청년 체감형 정책 수립 위해 도민 공모

올해부터 연 2회 확대... 7월 23일까지 청년정책분야 공모 접수

전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 도정 발전을 위한 도민의 지혜를 모은다.

연구원은 도민 밀착형 정책 개발을 위해 제8회 '열린 연구, 좋은 연구' 도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연구원 '도민과 함께 하는 연구원'을 모토로 도민이 연구과제 발굴에 참여할 수 있는 도민공모를 올해부터 연 2회로 확대했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지역의 인구위

기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과제 제안분야를 청년정책분야로 특장해 공모할 예정이다.

도민공모는 지역의 청년뿐만 아니라, 도정에 관심 있는 도민이면 개인 또는 공동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자는 전북연구원 홈페이지 참여 마당-도민공모 게시판에서 연구과제 아이디어 제안서를 내려 받아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이메일(idea@think.kr)

로 접수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청년일자(비정규직, 실업문제, 창업), 청년여가 및 문화, 청년건강(보건 의료, 복지), 청년거버넌스(행정 및 지원체계), 청년취업 등 청년정책 전반을 망라한다.

권혁남 원장은 "도민이 원하는 현장 중심의 과제발굴을 위해 올해부터 도민공모를 연 2회로 확대했다"며 "지역의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응모된 모든 연구과제는 창의성,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와 내부 연구진 의견을 종합해 선정되며, 심사 결과는 7월말 전북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심사 결과 우수 연구과제는 최우수, 우수, 장려상으로 시상되며, 선정된 연구과제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와 전북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연구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북연구원 연구기획부로 문의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도, 구제역 일제접종 이행 여부 확인검사 결과 항체양성을 향상

전북도는 소와 염소의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을 위한 검사 결과, 지난해 97.2%보다 1.7% 향상된 98.9%의 항체양성률을 보였다고 21일 밝혔다.

검사는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시 방어할 수 있는 면역항체 형성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로, 구제역 백신접종 4주가 지난 290호(소 254호, 염소 45호)를 대상으로 농가당 5두씩 검사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일제 접종 시 임신 말기, 새로 태어난 송아지 등으로 미접종한 소는 보강접종을 실시하고, 농장 소독, 외부차량 통제, 축사 출입시 손 씻기, 작업복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5년 연속 구제역 비발생 청정 전북을 유지하자"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신산업지도 변화 의의와 발전방향' 공동 세미나 개최

전북연구원·전북테크노파크, 오늘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과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가 22일 오후 2시 전북도청 대회의실(4층)에서 '전북도 신산업지도 변화 의의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과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선정 등으로 탄소소재산업이 가시화되고 있고, SK 컨소시엄의 투자계획과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 등으로 내년 대진과 연계해 탄소소재 이후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도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 향후의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먼저, 1세션에서는 전북연구원의 김시백 박사가 '소부장 특화단지 및 산업단지 대개조 선정 의의 및 향후발전 방안', 이지훈 박사가 '빅데이터융합 전북 신산업의 혁신전략' 등이 발표되며, 설경원 지역혁신협의회 의장을 좌장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대, 원광대 등의 전문가가 참여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2세션에서는 전북테크노파크 이승인 단장이 '전북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에너지산업 발전방안', 이영미 단장이 '전북 바이오헬스산업 현황 및 혁신전략'이 발표되며, 윤권하 원광대병원장을 좌장으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북대, 마더스제약 등의 전문가가 참여로 전북형 신재생에너지산업과 바이

오산업에 대해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권혁남 원장은 "디지털 대전환과 생태문명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전북의 산업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전북의 탄소소재 육성의 노후가 데이터산업, 바이오산업 등으로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양균의 원장은 "탄소소재는 명실공히 전북이 수도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고, 이제는 미래를 보고 새로운 산업을 보다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며 "전북 산업정책의 두 축인 전북연구원과 전북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에 대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특별점검 실시

전북도가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음식점·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위생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4개 시·군과 함께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방역 및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고속도로 휴게소, 해수욕장·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음식점·유흥시설 등 식품취급시설과 보양식 취급 음식점, 빙과류·얼음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관리,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부패·변질 원료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조리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여름철에 많이 섭취하는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냉면, 콩국수, 빙수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한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